



부산국제금융진흥원

보도자료

배포 즉시 보도 가능

담당부서

국제금융실

실장 신삼봉 (051-631-0291)

매니저 권태형 (051-631-0294)

부산국제금융진흥원,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MoU 체결

- 중동 최대 국제금융센터와의 MOU 체결로 ESG, 핀테크 등 공동 사업기회 확대 기대

□ 12월 15일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김종화)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두바이와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(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, DIFC)와 MOU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
○ 양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환경, 사회, 기업 지배구조(Environmental, Social, and Governance, ESG), 핀테크, 공동 웨비나 개최, 미래의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금융시장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.

□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은 “국제금융도시 발전의 표준을 제시한 DIFC와의 협력을 통해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 고 밝히며, “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핀테크 및 혁신 분야의 성공사례를 DIFC와 공유해 나갈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□ 아리프 아미리(Arif Amiri) DIFC 관리청(DIFC Authority) CEO는 “세계 주요 금융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온 DIFC는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함께 미래 금융의 중심인 ESG와 핀테크 등 주요 분야에 협력하기를 기대하며, 부산의 기업과 기관들이 MEASA 지역에 진출할 경우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” 이라고 언급했다.



(신삼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국제금융실장(우)과 살만 자프리(Salmaan Jaffery) DIFC 관리청 최고사업개발책임자(좌)가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. / 사진: 부산국제금융진흥원)

- 두바이 국제금융센터(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, DIFC) -

DIFC는 2004년 설립 이후 현재 약 28,000명의 금융전문가들과 3,200개 기업이 집적한 중동, 아프리카, 남아시아(MEASA)의 핵심 금융중심지로서 지난 17년간 아시아, 유럽, 미국과 MEASA 지역 내 신흥경제국 간의 투자 중개 역할을 수행해 왔다. DIFC는 영국 관습법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사법체계를 갖춘 금융 자유무역지대이며, 최신 기술, 혁신, 사업제휴 등을 통한 미래 금융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, 특히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,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 펀딩 등 핀테크와 벤처 캐피털과 관련하여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.